

여야, '초박빙' 출구조사 결과에 반응 엇갈려

# 민주 '고무' · 국힘 '정적' · 정의 '침통'

민주, 상황실서 박수 터져... "우리가 이긴다"  
국힘, 조사 결과 납득 못하는 목소리도 나와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 외의 선전에 고무된 반면 국민의힘 상황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득표율보다 현저히 낮은 출구조사 결과에 침통한 분위기다.

9일 실시된 20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 미만 차의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앞섰고 JTBC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 터진 민주당 상황실... "우리가 이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당원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초박빙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47.8% 윤 후보는 48.4%로 두 사람 간 격차는 0.6%포인트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상황실에 속속 모이기 시작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과 의원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불안감도 감돌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심호흡을 하며 초조해보이던 민주당 상황실은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박수가 나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고 파이팅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여기에 JTBC에서는 이 후보(48.4%)가 윤 후보(47.7%)를 0.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송 대표는 "와야 환호를 지르며 '이겼다'고 외쳤다.

의원들은 모두 민면에 미소를 띄우고 박수를 치며 "가자 가자!"라고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송 대표는 감격찬 표정으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침착하게 자세를 고쳐앉은 후 결과에 안도한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미소를 가득 띤 채 두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웠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강홍식 전략기획본부장도 긍정적인 결과에 얼굴이 붉어진 채 상기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10% 내외 승리 예측했는데... 박빙에 정적

무난한 승리를 예측했던 국민의힘은 '초박빙' 출구조사 결과에 애써 표정관리에 나섰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윤 후보가 이 후보를 0.6%p 앞섰고 JTBC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0.7%p 뒤졌다.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대선 개표상황실은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앞서 이준석 대표 등 당 내부에선 "윤 후보가 10% 내외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우선 이 대표와 권영세 선대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수를 보였다.

반면 정진석 의원과 원희룡 정책본부장 등은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권 본부장은 급히 자리를 떠났다.

호남 민심에 공을 들여왔던 이 대표는 호남 지지율이 발표되자 "최고치긴 한데..."라고 말을 흐렸다. 또 "서울 5% 이겼어요. 경기 5% 지고"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의원이 "충청에서 가르졌다. 캐스팅보트"라고 분석하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정 의원은 "빠르게 해야겠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출구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규 의원은 "JTBC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기는 걸 진다고 하고"라고 지적하자 옆에 앉아 있던 임이자 의원은 "거꾸로 했다며 맞장구를 쳤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지역별·연령별 출구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본 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 저조한 예상 득표율에 '한숨'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지상파 3사



지금은 개표작업 한창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전주시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및 JTBC의 출구조사 모두 3위를 기록한 결과가 발표되자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여영국 총괄선대위원장, 배진교 공동선대위원장, 강은미·류호정·이은주 의원 등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에 모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상황실은 술렁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0.6%~0.7%포인트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나오자 놀란 반응이었다.

당 관계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봤다. 심 후보의 득표율이 TV화면에 나오지 않자 "왜 정의당은 안 보여주냐"라는 불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심 후보는 이날 KBS·MBC·SBS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와 JTBC 출구조사에서 모두 2.5%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확인한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새어 나왔다.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에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앞서 심 후보는 TV 토론에서 두 자리수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6.17%의 득표율을 얻었다.

/뉴시스

## “전북 수산업의 값진 쾌거”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군산 새만금 산단에 들어서  
이원택 의원 “수산식품 스마트화로 미래 먹거리 육성”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21일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군에 경쟁하에 이날 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 군산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되기까지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의 노력이 컸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이원택 의원실에



서 수차례 협의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한 전북 군산시가 공모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것은 함께 노력한 송하진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의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수산식품이 약하고 영세한 전북에 스마트 수산가공단지가 유치된 것은 전북 수산업의 값진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 수산식품의 스마트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수출품 거점 종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용지  
훼손·촬영 등 혐의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일 선거인 A씨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8일 선거인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장수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투표보조를 하려다 이를 사전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어머니의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항은 선거에 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본인이 가입된 SNS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일 순창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이 가입된 SNS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바이든, 문 대통령에

‘대리 수출통제’ 감사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 한국 정부의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7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전략 비축유 수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